

21 세기 희망의 인권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이 있습니다.

이 전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연합의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획입니다.

모든 인권문제의 해설과 함께, 인권에 관한 세계의 귀중한 자료, 예술품을 공개합니다.
국제연합의 광고센터,유니세프주일사무소,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

< 볼 만한 곳 >

1.일류의 솜씨,아름다운 영혼을 만나다.

장애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한없는 정열이 묻어있는 일류의 아트가 모두 모여있습니다.전맹의 일러스트레이트 에무나마에씨의 작품, 치카프미에코씨의 아이누무늬자수, 「아웅산수지에 보내는」 웨인 쇼터의 직필약보 출품.

2.가슴 떨리는 스토리와 만나다.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간으로서의 자부심...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역사를 움직였다. 「세계인권선언」 초고,마틴 루터,자누스 코르차,간디,엘리너 루즈벨트,킹 목사, 헬렌 켈러등 인권을 위해 싸운 세계의 위인들이 남긴 직필,귀중본 전시.

3.무한의 희망과 만나다

리베리아의 소녀가 신문에 그린 그림,난민캠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이어를 재료로 만든 샌들등을 전시

4.세계의 모든 인민문제를 알차게 전시

여성,아이,원주민족,출생,외국인,장애자,고령자,동성애,빈곤,기아,의료,HIV/에이즈,환경문제,노숙자,자살, 분쟁, 난민, 지뢰, 테러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시각장애자도 함께 놀 수 있는 그림책 등 약 400 권의 그림책이 있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코너도 찾아 와 주십시오.

P01
들어가며

이 전시의 주인공은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며, 따뜻한 가정, 깊은 우정, 국가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해야하는가 등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해 줍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게 되는 현실도 만나지만, 인권을 바로 마음에 새긴 사람은, 진정 당할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밝은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맞 본 사람이, 가장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전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P02
프로로그 전시품

인권의 기본문서로 된 세계인권선언 초고 23 장은, 그 중심적인 초안자였던 캐나다의 함프리박사로부터 이케다 SGI 회장에게 기증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코너에서는, 321 언어로 번역되어, 기네스북에도 공인된 세계인권선언을 50 인치 판넬로 표현. 지도상의 한 언어를 터치하면, 세계인권선언이 그 민족의 언어로 화려하게 표시됩니다. 그밖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쓴 1521 년 발행금지문서, 인도 비폭력운동의 투사인 간디가 감옥에서 쓴 편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저작 「사형수 최후의 날」 등을 출품. 시대를 움직인 인권 투사의 뜨거운 심장소리가 전해지는 듯 합니다.

세계 재즈계의 카리스마로 불리는 웨인 쇼터씨가 미얀마에서 군사정권과 싸우고 있는 아웅산 수지에게 보낸 음악의 직필악보도 출품됩니다. 또한 일본 반골 저널리스트였던

키리유 유우유가 군부정권을 비판한 시나노마이니치 신문의 기사도 출품. 그는 이 기사로 군부의 노여움을 사, 신문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약 1200 개나 되었던 일간지가, 1942 년에는 55 개로 통합되는 등, 언론 통제가 악화의 일보를 걷는 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군부비판의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P03
인권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이 코너는 세계인권선언을 알기 쉽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모두가 평등! 차별은 허락할 수 없다.
살아갈 권리가 있다.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
잔혹한 형벌은 받지 않아도 된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함부로 체포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공평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자신이 살아갈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망명· 귀국의 자유가 있다.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결혼 · 이혼의 자유가 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사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평화적으로 모여, 그룹을 만들 자유가 있다.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이 될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직업을 선택의 자유가 있다.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저작자의 이익은 보호될 권리가 있다.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에서만 사람들은 의무를 다한다.

P11
여성의 코너 전시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인권선언작성에 공헌한 엘리너 루즈벨트가, 아들에게 보낸 마음 따뜻해지는 직필의 편지와 사인이 들어간 초판본. 19 세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을 실현한 뉴질랜드의 케이트 웨퍼드와 관련된 물건들을 출품. 또한 당시 22 세였던 베아테 시로타 고든이 일본헌법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넣어 타이프라이터로 쓴 초안도 출품. 일본에서 살았던 베아테씨는 일본여성도 사회에서 크게 활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의 헌법을 참고로 하여, 일본 헌법의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여성들 자신의 손에 의해 역사가 크게 움직인 모습이 전달됩니다. 또한 타이 산악민족의 여성이 손으로 만든, 리스족과 몬족의 민족의상을 입은 인형을 출품. '리스'란 '고구' 라는 의미를 가지며 타이의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존재. 몬족은 두뇌가 명석하여, 무엇이든 도전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회복을 위해 만든 소품 등, 인간에게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물품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P12
젠더
Only One Power 로 갑시다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여자다움이란 무엇인가?
부모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린이다움이란 무엇인가?
선생다움이란 무엇인가?
학생다움이란 무엇인가?
자기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릴때부터 몸에 배인 여러가지 「다움」이 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움」
때로는 자신을 속박하는 「다움」
「다움」을 하나씩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다움」을 하나씩하나씩 벗어낸다면,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최후에 남는 것이 자신의
본모습일까?

콘노히토미 저 『마음의 말 4』

<젠더평등>

명확한 이유도 없이,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젠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단 한사람,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재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젠더평등이 세계의 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젠더차별>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잡음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은 퇴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고, 자신의
인생은 결혼한 남성에게 의해
결정되는 현실은,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성도
역시 역할에 묶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

「桜梅桃李」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쿠라는 사쿠라, 매화는 매화,
복숭아꽃은 복숭아꽃, 배꽃은 배꽃 -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꽃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다운
빛을 발하며, 자기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세계각지에서 「Only One Power」를
끌어내는, 엔파워먼트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엔파워먼트 운동」이란?>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
자신다움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여성이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나 단체가
문자를 가르쳐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13

여성의 고용

신세대의 여신들
네오 히로인이 계속해서 등장!

여성들은 항상 변혁에 도전하고
있다.
부드럽고,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있다.

동기로 들어온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전무는 「육아휴가로 6 개월간 쉼
부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라가 정해준 휴가입니다. 제
마음대로 쉼 게 아닙니다.」
6 개월후, 그녀는 승진.
후에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

아이가 태어났다
「퇴직은 언제지?」라고 상사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퇴직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부터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다. 재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12 년째의 인사이드-배속된 부서에서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남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상사에게 말했다.
「남성과 동등하게 일을 주십시오」
상사는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지? 당신이 와
주어서 가장 좋은 때는,
손님이 왔을때 차를 내줄때라구」
전무에게 용기를 내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지금 있는 부서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개월후, 그녀는 중핵의
기획개발부에 이동된다.

<아직까지도 적은, 여성 리더>
여성의 사회진출도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기준, 젠더엔파워먼트
지수의 일본순위는 세계 44 위.
해마다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관리직에는
적합하지 않다」. 「어차피 결혼하면

퇴직해버린다, 중요한 일들은 맡길수
없다」 등 일반적으로 단정을 짓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간접차별이
있어 지위향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남자는 바깥, 여자는
가정」이라는 시대의 종언>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있는지가, 그
나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21 세계
중요과제로 삼았습니다.
행정쪽에서는 문제해결의 자리도
마련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율은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등도 성희롱의
원인이 되어, 사회에서 여성이
활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P14

여성에 대한 폭력

슬픔의 미궁 저편으로.

감금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이야말로 조금 변해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머리 위에서 울려퍼지는 폭풍우
같은 욕설.
치켜든 주먹이 만들어내는 작은
회오리 바람.
아픔이라는 감각은 더이상 느낄수
없었다.

「아니야, 이걸 견딘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
이대로는 나 자신이 없어지고 말아.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한장의
그림엽서.
「그림을 그리자」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정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오는
살아있다는 감각
즐거웠다.
자신이 정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사람도
생겼다.

「괜찮아,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조금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남편
「내 처를 때리는게 뭐가 나쁘다는
거지?」
이것이 그의 최후의 말이였다.
<빠앗는 것, 그것은 인권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상대방 인생의
꿈이나 희망, 미래까지도 빼앗는
인권침해입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때려서 알게 하라」,
「여자는 아무말 말고 남자만
따라가면 된다」 등의 「폭력을
공정하는 문화」라도 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은 남성과 여성의
생각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아직 더 있다!>
세계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인신매매 등도 있습니다. 매매된
많은 여성은 학대나 고문을
당합니다. 선주민족, 난민, 농촌,
빈곤지역, 장애자, 고령자, 분쟁 중의
여성 등 차별을 받는 특정한 그룹에
있는 여성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최대의 도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문제로
세계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그때부터 최대의 도전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한
문화적, 전통적 관습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제연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최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인권문제라고 여기고,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의 강화를 각 나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1년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방지법을 제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상담소나 일시적인
피난장소도 각 지방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P15
세계여성의 데이터

<「세계최초」의 여성들>

1. 케이트 쉐퍼드를 리더로 한
풀뿌리운동으로부터,
뉴질랜드에서는 1883년에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이
실현되었다.

2. 1999년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각료 전체의 과반수가 되었다.

3. GHQ 민생국원의 당시 22세
여성, 베아테 시로타 고든씨가
일본헌법의 초안작성에
관여,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14조, 24조 제정에 전력을
쏟았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세계에서는 연간, 60만명에서
80만명의 인신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가 여성과 아동, 50%가
특정그룹이라고 하는 마이너리티의
여성입니다. 여성은 걸으로는
웨이트리스, 메이드로서 고용되고,
그 후엔 매춘 등을 강요당합니다.

<일본여성 리더는 아직 적다!>
여성이 정치나 경제, 사회활동의
장소에서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로서, 젠더 엔파워먼트지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등을 점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로서, 일본은
세계에서 44번째입니다.

P21
아동코너의 전시물

아동의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실천한, 자누스
코르착의 저작 『마티우스 1세』가
1945년에 아메리카에서 출판된
초판본을 공개. 유대인이었던
코르착의 작품은 당시, 본국
폴란드에서는 금서로 취급.
1945년이라는 세계 2차대전의
혼란속에서, 아동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아동을 주역으로한
작품이 아메리카에서 번역되고
일러스트를 넣어 출판한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코르착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 그곳에는 어린이가
재판관인 재판소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아원에 유대인 어린이들이,
나치에 의해 가스실에 연행될때도,
그는 어린이들에게 「피크닉
가자.」라고 불러모아, 어린이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밖에도, 코르착이 존경했던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
페스타로치의 직필편지와 귀중한
당시의 서적도 출품합니다.
또한 이전에 병사로 내보내어진
어린이나 스트리트 칠드런, 양친이
에이즈로 죽은 어린이를 비롯해서
세계의 어린이들의 그림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P22
세계아동의 현황

지구의 노래

이 대지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다.
음악, 그림, 축구, 야구, 실업가,
우주...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도
많이 있다.
온갖 문제들의 아이에게 밀려간다.
때로는 부모가 가난해서
또 때로는
아이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어떤 아이는 전쟁이 일어나, 부모가
살해당하고
마을에서 도망치다가 병사에게
유괴당했다.
그녀는 12살로, 이름도 모르는
병사의 아이를 낳았다.
갓난아기를 업고, 총을 쏘는
병사로서 전쟁터로 내보내졌다.

어떤 아이는 「돈을 벌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도로의 한쪽편에서 살고 있었다.
가진 물건은 모포 1장
쓰레기를 주워서 돈으로 바꾸었다.
학교에는 갈 수 없었다.
학교를 몰랐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용단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공장장은 「배가 고파야 졸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며
식사를 하루에 한번밖에 주지
않았다.

비참한 현실에 압도되어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들은,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분을 풀고, 하루를 보낸다.

길가에 피어있는 노란 꽃을, 먼지와 흙이 묻은 머리카락에 장식한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그림책을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찾는다.
골판지 상자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하듯 차고 논다.

이 아이에게는 「지금」이 없다.
미래의 꿈도 그릴 수 없다.
오늘도 피곤해 지친 아이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든다.
그 아이가 미소짓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조용히 돌고 있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
지금, 세계에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1억 2100 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해서,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가 멀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교과서나 학용품이 없어서, 등등입니다.

P23
세계의 아동 데이터

2005 년, 18 세 미만의 세계 어린이들은 22 억명. 그중 빈곤한 상태로 살고 있는 어린이는 10 억명, 제대로 된 주거지가 없는 어린이는 6 억 4000 만명,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는 1 억 2100 만명 이상 있습니다.

2002 년의 국제연합 아동특별총회에서, 어린이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그것은, 빈곤, 학대와 착취, 전쟁을 끝내는 것,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30 만명의 어린이 병사가 존재하며, 적어도 36 개의 무력분쟁에 어린이 병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1 년의 데이터로,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스와질란드, 케냐, 레소트, 우간다에서는 에이즈로 부모중 한쪽 또는 양쪽을 잃은 14 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P24
이지메(괴롭힘)

미래는 반드시 있다

클래스의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나에게도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지도 몰라....

학교는 지옥
반년,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내편은 없다.
괴로워서, 괴로워서, 언제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냈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지않아
절대로

<이지메 사회, 일본>

이지메는, 등교거부, 전학, 퇴학 등, 어린이의 사회에서 자신이 있을 장소를 빼앗아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지메를 당한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지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교나 가정에서 이지메의 일반화, 이지메에 의한 자살이 많은 사회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지메를 생각하는 8 개의 말>

1. 이지메를 하고 있는 쪽이 백퍼센트, 천퍼센트 나쁘다.
2. 사람을 이지메해도 좋을 이유는 절대로 없다.
3. 사람을 이지메하는 인간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은 죽어있는 것이다.
4. 위기의 순간에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5. 이지메를 당하는 쪽도 원인이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6.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
7. 「무시」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주는 <폭력>입니다.
8. 폭력을 「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

<늘어나는 등교거부>

이지메를 당하거나, 학교에 가기가

싫어져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의 초등,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 10 명중 1 명이 등교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불안, 공포, 불신을 전부 안아주고, 없애주는 주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P25
학대

내 눈물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빠에게 맞고, 차이며, 몸을 작고 딱딱하게 움크렸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언제나 불렸다.
시장보러 가는 것처럼 나가서, 길거리에서 조용히 울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턴가, 기쁨도 슬픔도 될수 있는 대로 표현하지 않게 됐다.

「상담소」에 있는 사람과 몇번이고 이야기를 한 어느날, 그 상담원이 말했다.

「너는 나쁘지 않아.
맞고 차여도 괜찮은 인간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 말을, 만날때마다 반복해 주었다.

그 상담원은 오늘도 또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100 번이라도 말할 거예요..」

눈물이 흘러넘쳐 멈출 수 없었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따뜻한 눈물도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마음도 봄의 해바라기처럼 따뜻했다.
살아도 좋겠구나.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의 붕괴속에서>

학대라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본래, 안심하고 안전한 장소이어야 할 가정속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싶었던 어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혼란스러워지며, 자신이 나쁜 것은 아닐까, 라고 자신을 긍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하는 부모 또한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부모자신이 아이였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으며 자란 환경이 아니었던 경우나, 불안정한 결혼관계 등, 자신의 스트레스를 약한 상대인 아이에게 향해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와 함께, 어른을 돌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학대란?>

1. 신체의 학대(폭력)
2. 성적 학대
3. 방치, 아이를 지키지 않는것. 구체적으로는 의사에 데려가지 않는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시키지 않는다 등.
4. 심리적인 학대. 구체적으로는 「죽어주면 좋을텐데」, 「할 수 있을리가 없지」 등 언어에 의한 협박, 무시, 거부적인 태도, 형제자매간의 비교 등도.

P26

아동의 의견표명

어린이들의 큰 바람과 정열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국제연합 아동특별총회에 모인 세계대표 어린이, 400 명이 선언을 한다.

「우리들은,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한 싸움에, 마음을 하나로 단결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대표의 이본느는 13 세 그녀는 케냐의 스트리트 칠드런의 교육지원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계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크레이그는 「아동노동의 참혹함을 알리던 소년이 살해당하다」 라는 신문기사에 눈이 멈추었다. 다음날, 그는 학교에 가서 동급생에게 호소했다. 「괴로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들 어린이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친구들은, 어린이들만으로 운영하는 NGO 를 만들어서, 드디어 45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지부가 발족했다. 크레이그는 말한다. 「행동으로 보이자는 목소리가 나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변화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속에 변화의 힘이 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아동참가 의견표명권>

1989 년 ,국제연합에서 만든 「어린이 권리조약」에는,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커 갈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어른에게는, 「어린이의 바람이나 생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참가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가 레벨에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아동의회도 유럽각국을 비롯해, 아프카니스탄이나 요르단, 타이 등 각지에서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NGO 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P31

차별코너의 전시물

삼중고의 장애를 넘어서 헬렌켈러의 최초의 저작인 『낙천주의』의 직필사인이 들어간 초판본. 사인은 정갈하게 쓰여진 블록체의 필적입니다. 헬렌켈러는 이 서적을 대학시절에 집필, 희망과 빛이 넘쳐나는 그녀의 사상에 아메리카, 영국의 두개 대학에서 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현대의 일류 아티스트에 의한 작품도 모았습니다.

일본의 선주민족이었던 아이누민족의 현대적 자수가인 치카프미에코상은, 꽃과 샘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전맹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에무나마에상은 동물을 모티브로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러스트 그림을 출품. 개, 고양이, 쥐를 비롯해 여러가지 동물이 긴 한장의 마후라에 그려넣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것 같은 작품 「한장의 긴 마후라」 나, 등에 날개를 단 고래가 우아하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나는 작품 「스타라이트 홈」 등,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하며, 온화한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란인으로서 처음으로

동경예술대학에 입학한 도예가 사브리상의 작품은, 본인의 특기인 이란 서도를 모티브로한 모양이 들어간 그림접시와 동물을 이미지로 해서 만든 꽃병과 장식품은 각 나라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폐증은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사키타쿠야씨는 때론 힘있게, 때론 사랑스럽게, 때론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간 조형작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외, 오키나와의 밝고 선명한 색채가 미력적인 류우큐염색물과 재일브라질인이 그린 그림과 삼바악기, 피차별부락지역이었던 오사카 나니와구에서 제작된 복 등, 다양한 전시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약기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P32

태생에 따른 차별

행복의 끈으로

당시 17 세의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과 같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을 했다.

그의 아이만이, 그녀에게 남겨졌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시민권이 없는 아이였다.

그녀의 신분은 「바디」 - 매춘이 그녀의 직업이었다.

신분이라는 굴레에 묶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그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NGO 의 원조로, 그녀는

채소가게를 개업할 수 있게 된다.

성장한 그녀의 딸은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엄마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장래에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위해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말한다.

「우리 매춘부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고용기회를 얻는 것과, 인간으로서 존엄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야말로 인간의 사회이다.

어머니와 딸의 도전은 계속된다.

<태생에 따른 차별>

태생에 따른 차별에는, 피부색으로 차별되어지는 인종차별, 직업과 신분이 태어날때부터 정해져있는 사회구성에 의한 카스트 차별이 있습니다. 특히 카스트차별은 인도와 네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일본에도 「부락차별」이라고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약 2 억 5 천만명이 있습니다. 신체접촉이나 공공시설의 이용, 교육, 자연재해시 필요한 자원의 분배등에 있어서도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부정(不淨)함」은 전염한다라는 편견으로 인해, 다른 신분간의 결혼은 기피되어지고 있으며, 본보기로 징계하기위해 공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빛을 갓기위해 일생을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P33
선주민족

모든 전설은 여기서 생겨났다!

세상에 아직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태양이나 숲,강과 대화를 하며 살아 갔다.

생명이라는 말이 모든것을 부드럽게 감싸안아주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들속에 있는 「살아가려고 하는 힘」
그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과 통하는 것이었다.

잇고 있지는 않은가?
세계는 「불가사의」라는 이름의 하나의 섬

검푸른 바다에 떠있는 태평양제도의 사람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500Km 를 항해한다.

일곱빛깔 오로라 아래에서 생활하는 이누이트족(에스키모)은
기억만으로 거의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지구의 반이상의 삼림이 있어,세계의 대부분의 생물과

공생하는 아마존 선주민족은 6500 종류의 식물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호흡』과 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전부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전부와 호흡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탄생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國家が誕生する
선주민족이란,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놀랄만한 정도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과, 문화의 차이,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5000 그룹이 존재하며, 세계 70 개국에서 3억7천만명이 살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선주민족의 권리실현을 향해>先住民族の・・・
현재, 세계중의 선주민족이 단결해서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실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족이 받은 피해가 인정되어져 가고 있으며, 1995 년에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5 년 ~ 2014 년은 제 2 차 국제연합선주민족을 위한 10 년으로 지정되어, 권리조약초안의 실현을 위해, 침략국가와 선주민족의 대표가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통의 문제>
선주민족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터전을 침략당하거나, 빼앗기는 것입니다.국가는 때론,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선주민족에 있어 토지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전해오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신앙이나 신화,의식, 언어등 인간형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빼앗긴다는 것은, 거주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잃거나, 침략한 국가에 편입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민족국가, 일본>

일본에는 아이누와 오키나와(류우큐우)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주민족 아이누 사람들은 주로 홋카이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이누라고 밝힘으로서 주위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류우큐우는 17 세기 초반에 사쯔마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학교에서 류우큐우어의 사용이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전쟁시, 일본에서 유일한 지상전이 벌어진 지역도 있으며, 류우큐우어를 사용해 일본군으로부터 스파이로 몰려, 고문,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는 일본의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어, 소음이나 환경파괴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P34
외국인

브라질에서 태어난 소녀가 부모의 고향 일본에 왔다.
학년이 맞지 않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괴로운 세월이 지나갔다.
뜻있는 일본친구들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반년정도 지난 어느날, 갑자기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통역으로, 일본사회에서 일을 했다. 4 년후 상사는 재일브라질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있는 이 장소를, 어떤 나라의 사람에게도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 가고싶다>
그녀의 꿈은 더욱 넓어져 간다.

<오늘도 새로운 한자를 배웠어>라고 자랑스러운듯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 어머니를 대신해 필사적으로 한자를 공부하고 있다. 타이에서 돈을 벌기위해 와서 일본에서 결혼한 부모 그러나 아버지는 강제송환되어져 어머니와 어린 아들만 남겨졌다. 소년의 자원봉사의 협력으로, 초등학교에 입학, 어머니에게 일본어 책을 일러주는 것이 그의 일과이다.

재일코리아안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성이 있다. 중학교시절 조선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도덕적인

역사를 알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대학의 창립정신<평화의 포트리스>에 공명해, 입학
반면, 일본에 동화해 가는 것은 배신행위가 아닌가 라는 갈등도 있었다.
그때, 존경하는 교사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모두가 행복해 지기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가입니다>
그녀는 결의했다. 여기가 내가 인간으로서 눈을 뜬 대지이다.
인간으로서 눈을 뜬 대지에서 올려다 본 하늘은 그리운 고향과 연결되어있다.
그러니, 어떤 때에도 얼굴을 들고 살아가자 라고 생각했다.

<뉴커머>
현재 일본에는,188 개국,197 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재일코리안을 제외한 외국인을 뉴커머(최근에 온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러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노동자에 대해서는 한층 차별이 심해져서,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이나 부당하고, 임금미지불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일코리안(북한,한국)>
일본에는, 약 60 만명의 재일코리안이 있습니다.
1910 년,일본군의 조선반도 침략에서 1945 년의 전쟁종결까지, 생활식량을 찾아, 또는 군수산업이나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그외 노동력으로,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의 손주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일본어로 말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의 정책에 의해 일본이름을 붙인 배경으로 현재, 약 90%의 재일코리안이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편견과 차별을 느껴서 본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차대전후 ,일본국적이 박탈되어, 외국인으로서 취급되어졌기때문에, 지문채취의 의무, 연금, 교육, 직업, 참정권등의 제약이 있어, 현재에도 그 일부의 제약이 남아있습니다.

P35
장애자

마은은 비상한다.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혼신의 힘을 내서 살아왔다.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손뼉을 치는 것, 웃는 것조차도 때론 필사적이었다.
<흘러가는 대로>라는 마음 편한 말은 필요없다.
그때문에 하루하루가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으로 느껴진다.

<장애자는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모습은 자신에 차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활동을 해도 즉시 채용대상에서 떨어져나갔다.
<무슨일이 있어도 포기하지마!>
아버지의 격려로 취직을 하게 된다.48 째의 회사였다.

소아마비로, 전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살아가는 의미를 몰랐다.
27 세,존경하는 스승의 말이 되살아났다.
<곤란을 넘어서, 같은 처지의 사람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 몸이 보물이야!>라고 마음 깊은곳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병은, 약한 인간이 걸리는 것이다>라고 멸시당했다.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저녁에도 잘 수가 없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적이라도 나는 당신편입니다.>
암운에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발걸음은 무거울지도 모른다.그렇지만, 그렇게 걸어온 거리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편견의 틀을 벗어버린다>
장애를 이유로,<자신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이동, 교육, 주거, 취직의 제한, 급여의 격차,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시설에 대한 격리, 학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연애, 결혼에 대한 차별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타인의 협력과 받아주는 사회환경만 있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만, 장애에

관한 무지나 몰이해등에 의해 생기는 편견이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고령자)>
현재, 일본에는 65 세이상의 고령자가 2566 만명(총인구의 20%)가 있습니다. 정년퇴임후, 경험, 능력, 기술이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이유로해서, 취직차별을 비롯해서 고령자의 사회참가가 어려워, 살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운동능력이 떨어지거나, 새로운 장해를 가지게 되어, 많은 문제들이 장애자의 그것과 공통됩니다. 특히, 개호시설에서 불필요하게 어린이취급을 하거나, 구속, 신체적 정신적학대등 고령자의 인격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P36
성적소수자

자기자신을 살아가는 것에대한 기쁨
참을수가 없었다.
진정한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을
주위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하지만, 한발 내딛어 보자라고 생각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게 호호하고 싶어. 그런 마음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성입니다.>
<몸은 남성이지만, 마음은 여성입니다.>
<성욕자체가 없다. 연애감정자체를 모른다>
<제 몸, 30 세까지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뒤, 몸이 남성화되어져 갔습니다.>

한사람,한사람, 천천히 그리고 착실히 커밍아웃을 해 나갔다.
마음의 옷을 벗을때마다, 본래의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

가슴을 가진 사람은 말한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나 자신은 확실하게 말할수 있다. 남성이라고.
그걸로 좋다라고 생각한 때부터, 그것을 주위에게 말한 때부터, 더욱 살아야 겠다라고 생각했다.
남성, 여성이라고 하기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강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야, 처음으로 타인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타인과 다른 자신을 인정하며, 처음으로, 타인의 다른 점을 존중할 수 있게된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감동과 찬동의 박수를 보내는 따뜻한 사람들도 또한 빛나는 것이다.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적인 욕구의 대상이 동성을 향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이성을 향하는 것을, 이성애, 양성애를 향하는 것을 양성애, 어느쪽에도 향하지 않는 것을 무성애라고 부릅니다.이 방향성을 성적지향이라고 총칭하며, 자신의 의지나 타자가 손을 쓴다고 해서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동성애는 어떤 의미에서도 장애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동일성 장애>

육체적인 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내면의 성이, 반대이거나, 또는 흔들리고 있는 경우 성동일성장해라고 부릅니다. 동성애와 성동일성장해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성인식이 여성의 경우, 성적지향이 남성이라면, 육체적인 성과 관계없이 이성애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2004 년에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져, 성전환수술을 받은 2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을 조건으로 호적의 변경이 인정되어지게 되어, 병원에서 처치를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P41

구조적 폭력 코너의 전시물

아프리카의 르완다공화국의 사람들이. 바나나의 껍질로 만든, 코끼리, 기린, 코뿔소의 인형. 르완다에서 바나나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 바나나의 속은 주식으로, 나뭇가지와 잎은 건조시켜서 카드나 가방, 코스타, 지갑, 인형, 짚신등 다양한

공예품으로. 이러한 공예품을 시장등에서 판매하여 생활에 보태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HIV 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에이즈고아라고 불리우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HIV 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만든 테이프크로스. 어린이나 여성들은 재봉틀 비롯해 여러가지 직업훈련을 받아,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밖에도 노상생활을 보내면서, 살아있는 의미를 묻는 歌人の 말이 들어간 일러스트, 자살미수에서 회복한 서예가의 작품<봄은 멀지 않다>등,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과 타인에대한 다정한 마음이 들어간 전시품이 있습니다.

P42

빈곤

보물을 찾아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단 한사람,그 일을 시작한 청년이 있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쓰러져 가는 친구들, 무표정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

<우리아>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경이적인 수확증가로 7 천만인이 기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세계는 그 사람, 스와미나탄박사를 인도<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부른다.

빈곤과 식량부족에 대처하는 케냐의 여성이 있었다.

묘목을 심어, 삼림을 늘려가는 운동을 시작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지?>라고 바보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그녀를 따라주었다.

묘목을 심을때마다, 그녀들에게 <자신>이 생겨나고, 살아갈 힘이 생겼다.

마타이씨가 심은 묘목은 아프리카 전체에 퍼져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수백만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빈곤과 싸우자>

그렇게 결의하고 행동을 개시한 세네갈 15 세의 소년 마랄 그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그룹멤버로서 국제연합회의에 참가해, 빈곤한 현재상황을 알렸다.

젊은 세대에 빈곤과 싸울것을 호소했다.

마랄의 도전은 지금 막 시작된 것.

마타이씨는 말한다.

<타인에게 봉사하면,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 돌아온다>

보물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

<기아와 극도의 빈곤이란?>

기아는 식량이 충분이 없기때문에 항상 영양부족상태인 것. 극도의 빈곤이란, 식량뿐아니라, 교육, 일, 의료, 물, 에너지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

기아의 원인은 자연재해나 빈곤의 만성, 적은 농업생산량등, 극도의 빈곤의 원인은 기후나 지리, 지형등의 자연환경이나 낮은 경제성장률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쟁이나 통치기관의 기능마비, 인프라의 미정비등과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불평등>

사실, 세계의 총식량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배분 시스템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식량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량뿐아니라, 물이나 에너지, 의료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국가에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나라에도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2000 년국제 밀레니엄서밋트를 개최해서 세운 밀레니엄개발목표에는, 2015 년 까지 1 일 1 달러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P43

세계의 빈곤데이터

5 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매년 230 만명의 사람이 약천으로 막을 수 있는 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기아나 극도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

1990 년~ 2001 년에 걸쳐, 아시아의 극도의 빈곤층은 9 억 3600 만명에서 7 억 300 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역으로 2 억 2700 만명에서 3 억 1300 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아인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다.

<경제격차>

국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일부 소수의 부유층만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의 가장 부유한 20%의 사람들이 전세계의 소비의 84%를 독점하고 있어, 가장 가난한 20%의 사람들은 1.4%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무역>

국제사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은, 서서히 빈곤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발전도상국의 주된 산업인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붙이는등, 발전도상국들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전도상국에서의 교육>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교육은 선진국의 <영재교육>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예를들면,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난다든지, 오염된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지 말것, 작물을 기르는 방법, 영양을 균형있게 취하는 법등입니다.

P44

HIV/에이즈

아름다운 연대는 오늘도 싸운다

자신의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오늘도 몸속의 혈액이

<살아야해>하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공포에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침묵하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이 바이러스는 치료를 하면 함께 살아갈 수 도 있는 것이다.

모든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무엇보다 무서웠던것은, 병에 대한 편견이었다.

<악마의 각인>은 간단히 새겨지는 것이었다.

< HIV/에이즈와 싸우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마성과 싸우는 것이다>

선한 영혼들은 연대했다.

<함께 싸우자><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양성자네트워크는 눈깜작할사이에 지구를 돌았다.

불가사의하게도 , 국경도 문화도 종교도 언어도 쉽게 뛰어 넘었다.

연명을 그저 기다리는 사람에서 고뇌와 아픔을 함께하며, 희망을 나누는 리더로 성장해 갔다.

방글라데쉬의 나스린씨는 말한다.

<우리들이 침묵의 껍질을 찢고, 힘을 합쳐서 사회의 선두에 서면, 세상의 HIV 양성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연대가 오늘도 바이러스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절망과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다.

<빈곤,차별이 HIV 확대의 원인>

HIV 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3940 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3000 만명을 넘어서, 과거 20 년간의 전사자수의 합계보다도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있지만, 최근의 아시아의 나라들에서도 심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감소경향에 있지만, 유일하게 증가경향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에이즈가 퍼지는 원인은 광범위한 빈곤,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대책이 늦어지거나,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차별이나 편견등이 있습니다.

HIV 에 감염해도 장기간 에이즈의 발병을 늦추게 하는 치료약이 개발되어졌지만, 보급율은 아직 먼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양성자는 치료를 받지못하거나, 취직, 교육등 사회참가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하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염이 되었다고 알게 되어도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병한다 라는 것은?>

HIV 가 감염된 시점에서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서, 감염되고 나서 에이즈로 발증할때까지 수년에서 수십년 걸리는등 폭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HIV 에 감염된 혈액의 유출, 모자감염, 성행위, 마약주사를 돌려가면서 맞거나, 의료종사자의 사고이외의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P45

병

모든것이 <살아가기 위한 보물>

1931 년,어떤 마을에서 고열로 쓰러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다음날 고열로 쓰러진 사람은 집에서 사라져 갔다.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소년, 도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 여성 아무말도 없이,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병명은 <한센병>.그 병명은 당시, 전일본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몰랐다.아니, 알려지지 않았다.

<한센병>은 자연치로도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낮은 병이라는 것을

<빈곤병>이라고 불리며, 건강한 사람은 전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둘러받기위해서

환자들은 힘을 합쳐 일어났다.

싸움은 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01 년,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

승리했다.지금은 다음 스테이지로.

완전 승리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존귀한 그 사람들은 말한다.

<손발에 남겨진 병의 흔적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부자유한 손발과 신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것이, 살아가기 위한 보물입니다.
“자신이 안고있는 그 모든 것이 살아가기 위한 보물”
21 세기를 짊어질 어린이들에 보내는 메세지였다.

<구조적 폭력에서 일어나는 그밖의 병>
사회의 구조에 의해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예는, 미나마타병을 비롯한 공해병과 바이러스에 관한 병, 그리고 일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등 현대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응모나 외견상의 차별은 또다른 곳에도 있다>
유전, 병이나 상처로 인해, 기능적인 문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성적(유니크)한 응모를 가진 유니크페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타인과의 교류와 취직, 연애, 결혼. 학교에서의 이지메등,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쳐지나갈때에, <더럽다>,<기분나쁘다>등의 말을 하며,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진 대표적인 예, 미나마타병>
1956 년, 쿠마모토현 미나마토시에 원인불명의 병이 밝혀졌습니다. 한 기업의 공장폐수에 포함된 수은이 원인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기업측에서는 보고도 못본척하며 피해는 확대되어, 긴 시간 피해자측과 기업을 비롯해 쿠마모토현과 나라와의 사이에서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 년 간사이소송에서, 피해자측이 승소. 미나마타병이 퍼지게된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P46
노숙자

사람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간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뼈마디가 울퉁불퉁한 손은 햇빛에 그을려 검었다.
그 손으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등을 쓰다듬어주었을까.
잘 웃는 그 얼굴도 또한, 햇빛에 그을려 거무뜨레, 깊은 주름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그 주름의 깊이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사람, 한사람과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진지하게 살아간다. 그것만큼 충실감을 주는 것은 없다.>

그는 3000 명이상의 “홀리스와 살아가는 사람”,<노숙생활자>와 만났다고 한다.,
한 노인과 따뜻한 밥을 오랜만에 먹었던 다음날, 노인은 동사. 유감스러웠다.

<노숙생활자라고 해도 같은 인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100 개이상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항상 거리의 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다.
존재자체가 부정되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온다.

<마음의 치료에 반년, 몸의 치료에 반년, 그때부터 일을 1 년정도 한다. 2 년정도 걸리지 않으면, 자립에의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또한 길거리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옆에 있을 것이다.
그는 주소도 없는 <집>에 돌아왔다. 그도 역시 노숙생활자이다.

<노숙생활자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다>
홀리스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워지는 노숙생활자는, 일본에 2 만 5 천명이상.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만들어낸 원인은 실업입니다. 버블의 붕괴와 함께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상생활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특히 추운 겨울의 노상생활은 매우 힘든 것으로 가사나 동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존재를 비추어라!>
노숙생활자를 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법률은, 현행에서는 생활보호법밖에 없습니다.
65 세이상의 고령노숙자는 생활보호의 신청이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노숙생활자는 주민증이 없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거나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숙생활자를 입소시키는 민간의 숙박소가 설치되거나, 행정창구와 절충을 해보거나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찾아주거나, 보증인이 되어주는 시민단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P47
자살

어둠과 빛의 틈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했다
아무리 힘을 내어 잡으려고 해도
자꾸 미끄러져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불안, 공포, 절망, 공백...마음은
여러겹으로 휘감겨있어
태양은 이제 자신과 관계없었다.
<왜, 내가?>
이런 의문이 머리속을 떠다녔다.
몇번이나 상상했다.
어떻게 죽을까 하고.

그때 만난 말들
<좋은 일은 하나라도 할 수 있을 동안에
마음대로 인생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세어보는 것을 그만두자
자신이 할수 없었던것을
자신의 손으로부터 망가져간 행복의
숫자들을
오히려, 자신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보자

<늘어나는 자살율>
일본에서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7 년연속으로 3 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수자를 포함하면, 그 5 ~ 10 배의 숫자가 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세계에서 10 위, 선진국에서는 제 1 위입니다. 최근, 자살문제는 닛트나 프리타, 파라사이트등으로 불리우는 젊은이들도 심각합니다만,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많은 연대는 50 ~ 60 년대의 남성입니다.그 배경에는 해고나 실업, 도산등 불황에의한 인생의 길목 ,절망감과 관계가 있어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최후까지 <살고 싶다>와 <죽고 싶다>라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자살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본인과 위족들의 편견, 차별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위족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인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P51
분쟁코너의 전시물

원폭피해 2 세의 카메라맨 다나카씨 마사루씨와 원폭계획자를 아버지로 둔 화가 벳쯔이씨가 공동작업한 현대아트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바다에 침몰해가는 잠수함 위에는, 종이학을 양손으로 떠 받친 것처럼 큰 손이 뻗어있는 「당신의 손안에」는, 다나카씨가 아메리카의 펄하버에 침몰하는 아리조나호를 촬영하고, 종이학과 손을 벳쯔이씨가 그렸습니다. 종이학은 아메리카와 히로시마의 어린이들이 평화 메세지를 적어서 만든 거대한 종이학이 모티브입니다. 어린이들과, 다나카씨, 벳쯔이씨가 함께 만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원폭의 참혹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으로서,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검게 그을린 기와나 히로시마의 원폭투하시 열선으로 녹은 유리병을 전시. 열선은 3000~4000 도에 달해, 거리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와와 유리병은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상황에서 희망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당시사람들의 작품, 생활용품등도 전시되어있습니다.

수단의 난민캠프에서 사는 사람들이 낡은 타이어로 만든 고무 샌들, 난민캠프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한 채로 빠져나와, 제한된 생활물자중에서 지혜를 짜내면서, 궁리를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네팔의 난민캠프에서 잎을 엮어서 만든 접시, 콩고의 난민캠프에서 함석의 빈 강통으로 만든 장난감, 나무로 파서 만든 동물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 분쟁의 비참함, 잔혹함을 전해주는 지뢰모형과, 어린이 병사가

자주 사용하는 소형총 카라시니코프 무가동실총등도 출품합니다.아메리카의 군대에서 실제 사용되어진 방탄조끼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몸에 총탄이 맞은 것을 막기위해, 안에는 철판이 들어있어 굉장히 무겁습니다.

P52
핵무기 테러

숫아 오르는 에너지, 맑고 깨끗한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

「아이고.....」
히로시마시에 원폭이 떨어졌을때, 장복순씨가 들은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빈곤, 그리고 원폭피해 우리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왜 원폭으로 몸이 타들어가야 하는가. 그녀도 또한 원폭의 방사선으로 인해 몸은 썩어들어갔다. 몇겹이고 죄어오는 차별의 끈은, 생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더이상은...」이라고 몇번이나 생각했다.
불사조-갑자기 머리를 스쳐간 말이었다.

마음속에 숫아오르는 에너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전쟁의 비참함, 전쟁의 무서움, 차별의 추함.이것을 체험한 당사자로서 전달하고 싶다.

「힘이 없다면, 힘을 기르자! 지식이 없다면, 공부를 하자!」

50 년대야간 중학,고등학교에서 배우며,62 세에 대학졸업 사명이라는 금색의 날개가 빛나며, 큰 날개짓을 했다.

현재는 고교 교사,문맹퇴치교육지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바램은 지금 풀뿌리 평화 활동을 하는 세계의 청년들에게 퍼져가고 있다.

<미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인간으로>

현재의 「전쟁」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죄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빼앗는 「테러」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로서 행복을 느낄때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미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해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신문기자인 남편 다니엘씨를 파키스탄에서 유괴, 살해당한 마리안느 펄씨 .「복수하고 싶다」라는 충동으로 달려갈때도 있었다고합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테러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사랑과 자비, 동정과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그렇게 자신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후에 태어난 아들 아담과 함께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원폭>

원폭투하로, 1945 년 12 월까지 히로시마에서 14 만에서 15 만명, 나가사키에서 7 만 4000 명,합계 약 21 만명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원폭에 포함된 방사선은 유전자까지 파괴해, 후유증을 남기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폭자라는 것을 이유로— 결혼이나 취직에서 차별을 받거나, 가족도 그러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몇 만명이나되는 조선반도의 사람이나, 중국인, 아메리카의 포로병사도 있었습니다.

P53
분쟁과 지뢰

포기하기 말라

「의족이 있다면, 나는 달릴 수도 있다」

「나는 달리는 것으로 하나의 메세지를 세계의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

「자신 스스로 한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간단하게 포기하는 일은 , 하지말아야한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자신을, 세계를 가능성으로 가득찬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지뢰와 성화』 크리스 문 著

1998 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런너로 질주한 크리스 문씨.캄보디아에서 지뢰철거중에 지뢰를 밟아, 손발이 떨어져 나가, 오른손과 오른발의 일부가 없습니다. 사고의 쇼크를 타고난 유모어로 떨쳐버리고,그는 한번 더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빠앗는 것 밖에 못하는 지뢰>

「형과 누나가 각각 지뢰를 밟았다. 운이 나빴다 라고 말하지만, 나쁜 것은 지뢰를 만들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쪽이다.」 『대인지뢰 캄보디아』 후지와라 켄 쉿 지뢰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부상당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한번 묻으면, 폭발하거나 소거할 때까지 찾아낼 수 없는 지뢰. 최대의 피해는, 전쟁후 평화시에 일어납니다. 세계의 22 분의 1 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뢰로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선한 연대>

1992 년, “지구상에서 1 억개의 지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기” 위해 각국의 NGO 가 세워져, 지뢰금지 국제캠페인이 탄생. 그 운동이 큰 파도를 일으켜, 캐나다정부의 협력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이 성립. 지뢰철폐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겨있는 조약이 생겨났습니다. 반정부세력에도 찬동을 얻어, 2005 년 7 월시점에서 145 개국이 제약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분쟁하에서, 죄를 범한 개인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설 재판소. 여성과 어린이는 전투중에 강간, 집단학대, 강제실종(납치) 등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가해자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적인 재판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0 개이상의 NGO 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를 요구하는 NGO 연합」이 생겨나서, 60 개국이상의 비준을 받아, 2002 년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 실종/납치>

갑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끌려가는 것. 그 배경에는, 내전과 정치불안의 시기에 국가나 정치조직이, 적대하는 인간들을 강제적으로 체포, 유괴, 감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적실종/납치의 피해자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일반시민, 그러나 「강제적실종」은 국제재판소규정으로, 「인도에 대한 죄」로서 인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P54

세계의핵무기 지뢰 그밖의 병기의 데이터

<세계에 존재하는 핵>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핵병기는 러시아 16000 발, 아메리카 10310 발, 중국 390 발, 프랑스 350 발, 영국 200 발,합계 약 3 만발입니다. 이 모든 핵병기가 폭발하면, 지구상 인류전부를 몇번이고 죽일수 있게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이후, 세계각지에서 끊임없이 핵병기의 개발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그결과, 지구상에서 2000 번을 넘는 핵실험이 행해져 왔습니다.

<핵병기제조배의 배경에 있는 문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는 부유한 나라에 의해, 우라늄을 채취하도록 강요당하는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물론,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피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입는 것도 그/그녀들입니다.타자의 불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사람을 죽이는 일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핵무기의 실태입니다.

<지뢰>

이란 1600 만개, 앙고라 1500 만개, 아프카니스탄 1000 만개, 캄보디아 800 만개,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300 만개,모잠비크 200 만개,크로아티아 200 만개, 수단 100 만개, 소말리아 100 만개, 에티오피아 50 만개, 그밖에 쿠웨이트, 조선반도, 중국, 베트남에도 지뢰가 묻혀있습니다.

<집속탄>

하나의 커다란 폭탄안에 쥬스캔 정도의 작은 폭탄이 200 개 정도 들어가 있어, 투하하면 넓은 범위에 떨어지게 되는 폭탄. 또한 지구상에 떨어진 불발탄의 형태와 색은 어린이의 눈길을 끌며, 이차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집속탄의 불발탄은, 새로운 지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화우라늄탄>

탱크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방사성물질 우라늄을 포함하는 폭탄. 탱크를 노려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방사선 피해를 입힙니다. 그때문에 열화우라늄을 사용한 지역에서는 최근, 암이나 기형등

인체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열화우라늄탄의 방사선 물질은 토양에 침투하기쉬워서, 흙이나 물을 오염시켜, 그 위력이 사라질때까지 수억년걸린다고 합니다.

<AK47>

많은 분쟁지역에서 어린이병사가 사용하고있는 소총의 하나. 구소련의 미하일 칼라쉬니코프에 의해 만들어진 자동소총. 그의 이름을 붙여 카라시니코프총(별명 AK47)는, 약 4킬로그램정도로 가벼우며, 8개의 부품으로 되어있어, 어린이들도 들고 다니거나 조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55

분쟁과 난민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비취오는 태양이 대지를 빨갈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기온 50 도-민을수 없을만큼 높은 온도로 작열하는 붉은 길에 어디까지고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평온한 검은 띠 불가사의한 곡선을 그리는 그 검은 선은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불리웠다.

도착한 장소는 결코 안주할 땅이 아니다 하지만, 재생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오늘을 살아간다

「이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난민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전직 의사나 간호사들 「나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웃을 만들어 팔아 우유를 사는 칠드런 마더 「계속 함께 살아갑시다」지역주민과 난민과의 공생사회가 만들어지는 지역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희망을 만들어 낸다

공폭과 피난을 몇번이고 경험한 아프카니스탄의 청년은 말한다 「꿈을 가지면, 떨어져나가지 않는다. 상황이나 현상에 굴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도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

그가 일하는 학교는 연령제한이 없다.
소년,소녀에서 나이든 사람까지, 눈을 빛내며 공부하고 있다.
몇번이고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되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마음에서 재생의 힘은 되살아난다.

<분쟁중의 난민>
오늘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내전과 분쟁,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민의 80%정도는, 전쟁으로 남편이나 아이를 잃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입니다. 그중에는, 민족정화를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거나 피난도중에 성폭력을 입어 12 13 세의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해서 칠드런 마더로 살아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은 양의 식량과 물밖에 없는 캠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그리고 기아나 만연하는 병과의 싸움입니다.

<일본의 난민>
일본에도 난민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본에 옵니다.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된 현대는 각나라에서 신체의 안전을 요구하는 난민의 수가 증가. 범무성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1982 년 2003 년까지, 3118 명의 사람이 난민으로서 인정해 줄 것을 희망하며, 그중 315 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UNHCR 의 자급출처국제 2 위의 일본.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직 매우 어렵습니다.

P56
세계의 분쟁, 난민의 데이터

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분쟁 테러 일람>
알제리아의 이슬람원리주의 운동, 시크교도자치운동,
영국지하철동시폭발테러,
서사하라분쟁, 시에라리온내전, 리베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산유지대분쟁, 차드내전, 수단내전, 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국경분쟁,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내전, 부룬디내전, 콩고내전,앙고라내전, 카슈미르분쟁, 힌두지상주의운동,

스리랑카민족분쟁, 미얀마소수민족독립운동, 위글독립운동, 티벳독립운동, 중국 대만문제, 조선반도문제,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민다나오분쟁, 아체독립운동, 칼리만탄도민족대립, 마르크주종교대립, 이리안 · 자야독립운동, 뉴카레도니아독립운동, 솔로몬제도내전, 피지민족대립, 아메리카동시다발테러, 멕시코선주민해방운동, 콜롬비아반정부운동, 페루반정부운동, 북아일랜드분쟁, 바스크독립운동, 코소보분쟁, 마케도니아분쟁, 도니에스톨분쟁, 그루지안분쟁, 체첸분쟁, 나고르노 · 카라바흐 분쟁, 타지키스탄내전, 아프카니스탄 내전, 쿠르트독립운동, 이라크전쟁, 키프로스분쟁, 팔레스틴분쟁, 이집트의 이슬람원리주의 운동

<난민>
현재 세계에 있는 난민은 약 4000 만명
난민에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난민...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도망친 사람들,1190 만명
제 3 국 정주자...본국에서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귀국을 원하지 않거나, 귀국할 수 없는 사람.8 만 3700 명
비호희망자...자국을 빠져나와 타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며, 법적으로 난민으로서 인정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83 만 9200 명
국내피난민...국경을 넘지않고, 국내의 안전한 장소에 피난한 사람.2360 만명
귀환민...고향에 돌아왔지만,아직 생활의 재건에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전 난민이나 피난민.149 만 4500 명

P 61
국제인권보장 코너의 전시품

국가와 국가의 연합체인 국제연합창설을 처음으로 제창한 칸트의 저작 『영구평화론』은 1795 년발행된 초판본입니다. 9 개의 지침과 2 개의 보설로 영원한 평화의 기원이 응축된 문서입니다.
그밖에도, 권리의식에 대한 고전이라고 불리는 루돌프 폰 예링의 저작 『권리를 위한 투쟁』의 당시 발행된 서적도 출품합니다.
또한 국제연합 우체국 발행의 기념우표. 국제연합우표는, 뉴욕의 국제본부와 제네바와 빈의 유럽본부

우체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한해 우편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우표입니다.
또한 ,INF 조약기념군축메달은, INF 조약에 의해 폐절된 핵미사일의 파편으로 만들어져, 동서냉전의 종결로 위해 싸운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49 번째 메달이 이케다 SGI 회장에게 보내어졌습니다.

P62
평화를 위한 세계의 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수많은 시대를 거쳐, 인권을 위해 힘을 다한 사람들의 고난, 희생, 영지, 환희의 결정체-국제인권보장 지금, 이 순간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Actor 의 대두>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보다더 직접적으로 한사람한사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NGO 의 역할이 중시되어져 , 인권의 실현에 대한 파트너십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 근년 세계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다국적기업에서의 인권의 존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주목되어지며, 인권이나 환경보호등을 내용으로하는 국제연합과 기업에 의한 「글로벌 콤팩트」도 채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독자적인 대처, 국내인권기관(인권위원회나 옴브즈맨등)에 의한인 권의 실현과 축진이 기대되어집니다.

<새로운 인권과제>
21 세기를 맞이한 국제사회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경제격차의 확대나, 정보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감시사회의 문제, 클론기술등의 생명윤리의 문제등, 인권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형제도대한 찬반여론이나 차별표현과 표현의 자유등,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의 프로그램>

국제적인 인권보장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발전, 추진은 중요한 기둥의 하나입니다. 국제연합은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구축하기위해 1995년부터의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을 이어받아, 2005년부터 세계적인 인권교육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인권교육세계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침해에 의한 대처뿐만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길러가는 것을 중시하며, 프로그램의 제 1 단계(2005년부터 2007년)는 초등,중등 교육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72
마치며

「21세기 희망의 인권전」
어떠셨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생각된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양케이트에 쓰거나, 스탭에게 말씀해주시시오. 어떤 의견이든 소중히 받아들여서 이번 전시를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물론, 「좋았다」, 「감동했다」 등의 감상은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격려가 됩니다.

이번 전시는 여러 당사자들과 지원단체의 착실한 인터뷰와 협력으로 약 1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분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미움이나 불평이 아니라, 「희망의 시」였습니다. 그 말들이 제작자인 저희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주신 분들과 함께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땀고 싶습니다.

P73
그림책 코너의 전시물

이곳은 유아도 즐길수 있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제목을 붙인 그림책 코너입니다.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전해주는 그림책과, 이란이나 스웨덴등 외국의 진귀하고, 만지면서 즐기는 바리어프로그림책(여러사람등이 함께 놀수 있음)을 약 400권, 책을 읽거나 들려줄 수 있습니다.

P74
주체단체 소개

소카갓카이와 인권에 대해
평화의 어머니는 인권. 인권을
살아가는 것은 교육.

소카갓카이인터내셔널(SGI)는, 세계 190개국, 지역에 존재하는 약 1200만인의 회원과 함께 불법(佛法)의 인간주의를 기조로한 평화, 문화, 교육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GI는 1983년,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NGO로서, 또한 일본의 소카갓카이는 1981년, 국제연합광고국, 국제연합 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의 NGO로서 등록되어졌습니다.

소카갓가이는 1930년 11월 18일,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초대회장)과 토다 조세이(제2대회장)에 의해 창립. 1943년 7월 국가신도를 가지고 사상통제를 행한 국부권력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를 한 마키구치회장, 토다이사장이 불경죄로 투옥. 기관지는 발행금지되었습니다. 마키구치회장은 투옥중에도, 이 전쟁이 결코 성스러운 전쟁이 아닌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것임을 일관해서 주장하다가 다음해 11월 18일, 73세로 옥사했습니다.

1945년 출옥한 토다회장은 전후, 파멸된 소카갓카이의 재건을 결의.1957년 9월 8일, 토다회장은 5만인의 청년집회에서 누구든지 원수폭사용을 영원히 금지시켜야한다는 선언을 발표. 소카갓카이의 평화운동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 이케다 다이사쿠가 제3대회장에 취임. 흔들리지않는 평화확립을 위해, 대화와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풀뿌리 운동의 리더로서 활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기소를 당해 2주간간의 투옥과, 4년반에 걸친 재판을 걸쳐, 무죄를 받아낸

투쟁도 경험했습니다. 이케다회장은 세계 50개국이상을 방문하며, 1600회이상에 걸쳐 세계의 지도자,문화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83년부터 매년,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제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제연합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의 제창자의 한사람입니다.

이케다 SGI 회장의 평화행동에 호응해서, 소카갓카이청년부는 「현대세계의 인권」전을 세계 8개국 40도시에서 개최. 이곳에 50만명이 견학했을 뿐아니라, 그밖에도 전시,공연, 출판등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평화위원회에서도 「어린이의 인권」전을 제작.국내의 55회장에서 개최했습니다.